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향후 경제협력의 방향

작성자 : 지만수 세계 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jmansoo@kiep.go.kr, ☎ 3460-1201]
 서창배 KIEP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원
 [cbseo@kiep.go.kr, ☎ 8610-6499-3846]

主要內容

- ▣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를 맞는 시점에서 개최되었고, 이후의 한·중 경제협력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합의들이 이루어졌음.
 - 교역이나 투자 면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최근 1~2년 사이에 급증함으로써 중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10대 협력사업을 통한 협력영역의 다양화, 상호 투자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지역 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 확대균형을 통한 양국 무역수지 균형 달성 공감 등은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경제분야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 이러한 성과에 기초해 미래의 한·중 경제협력은 중국이 주는 기회, 위협, 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전방위적 성장이 주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의 채널 또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한국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및 중국 변수를 적극적인 관점에서 활용하는 투자유치전략으로 대응하여야 함.
 - 앞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장기적, 구조적 변동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 "중국 위험(China risk)"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의 협력 움직임을 우리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협력 주체의 이해관계 및 입장을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1. 한·중 경제협력의 신(新) 동향

가. 제1의 수출 시장으로 부상 가능성

□ 한·중교역은 수교 이후 연평균 20%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2~2003년 급증하고 있음.

- 한·중 교역액은 1990년 28억 달러, 1995년 165억 달러, 2000년 312억 달러, 2002년 411억 달러에 달했음.

- 2002년 한·중교역은 2001년 대비 30.7%나 급증했으며, 2003년 들어 5월까지의 교역액도 2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1% 급증함.

□ 한·중교역에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그 폭이 더욱 커지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음.

- 2002년 수출은 237억 달러, 수입은 174억 달러로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 수준인 63억 달러에 달했음.

- 2003년 5월까지 수출은 12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3%나 급증하였고, 수입은 84억 달러로 29.5% 증가하여, 5월까지의 무역수지 흑자만 40억 달러에 달했음.

- 2002년의 수출입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03년에는 대중 무역수지 흑자 폭은 더욱 커져, 연말에는 8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표 1> 대중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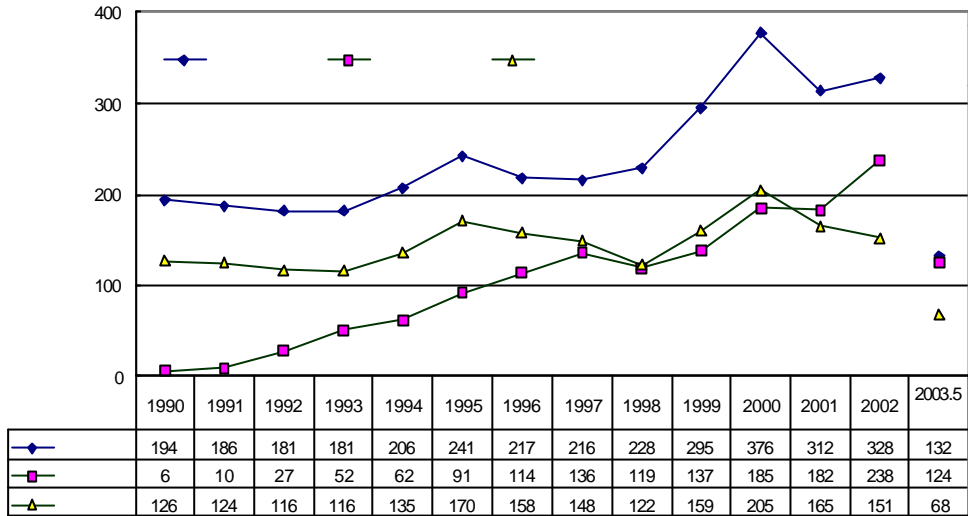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증가율%)

연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교역액
1990	585	(33.7)	2,268	(33.1)	-1,683	2853
1991	1,003	(71.4)	3,441	(51.7)	-2,438	4444
1992	2,654	(164.7)	3,725	(8.3)	-1,071	6379
1993	5,151	(94.1)	3,929	(5.5)	1,222	9080
1994	6,203	(20.4)	5,463	(39)	740	11666
1995	9,144	(47.4)	7,401	(35.5)	1,742	16545
1996	11,377	(24.4)	8,539	(15.4)	2,838	19916
1997	13,572	(19.3)	10,117	(18.5)	3,456	23689
1998	11,944	(-12)	6,484	(-35.9)	5,460	18428
1999	13,685	(14.6)	8,867	(36.7)	4,818	22552
2000	18,455	(34.9)	12,799	(44.3)	5,656	31254
2001	18,190	(-1.4)	13,303	(3.9)	4,888	31493
2002	23,754	(30.6)	17,400	(30.8)	6,354	41154
2003.5월	12,398	(48.3)	8,382	(29.5)	4,015	20780

자료: KOTIS.

- 한·중교역의 급증에 따라, 중국은 2001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5월까지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03년에 미국을 제치고 제1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음.
- 2002년 대미수출은 327억 달러, 대중수출은 237억 달러로 미국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나, 2003년 5월까지의 수출은 대미 132억 달러, 대중 124억 달러로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음.
- 5월까지 대중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48.3%에 달하는 반면, 대미수출은 정체(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고 있어서 5월까지의 성장률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중국은 올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게 됨.
- 홍콩에 대한 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 2002년 중국이 한국의 제1의 수출시장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그림 1> 한국의 對 中· 미· 일 수출의 변화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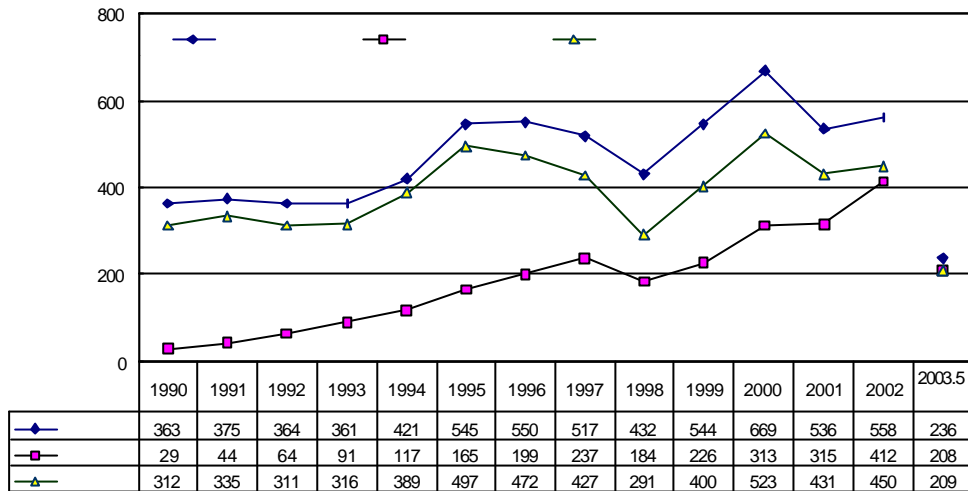


자료: KOTIS.

-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전체 교역규모에서 중국은 2002년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나, 2003년에는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음.
- 2003년 5월까지 미· 일· 중 3국에 대한 교역규모가 각각 236억 달러, 209억 달러, 208억 달러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대중교역의 빠른 증가를 고려할 때 2003년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한국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 될 가능성은 매우 크며, 미국과의 교역규모를 넘어서 첫 번째 교역상대국이 될 가능성도 있음.
- 늦어도 2004년에는 중국이 제1의 교역상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한국의 對 中·미·일 교역액의 변화

(단위: 억 달러)



자료: KOTIS .

□ 2003년 한국은 중국에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철강판, 합성수지, 석유제품, 반도체, 전자관, 석유화학원료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전체 수출의 50.5%).

-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 및 부품으로 중국 산업의 빠른 성장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을 한국이 공급하는 방식의 양국 분업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반면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의류, 컴퓨터, 석탄, 반도체, 농산물(식물성 물질), 전자용용기기 등을 수입하고 있음.

<표 2>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품목과 변화

순위	2001		2002		2003.1~5월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품 목	금액
1	합성수지	1,585	무선통신기기	2,225	무선통신기기	1,204
2	중유	1,231	컴 퓨 터	1,873	컴 퓨 터	1,096
3	석유화학합성원료	650	합성수지	1,694	철 강 관	897
4	음극선관	537	철 강 관	1,281	합성수지	737
5	컴퓨터부품	522	석유제품	1,172	석유제품	681
6	기타 의직물	454	전 자 관	1,139	반 도 체	503
7	편 직물	450	석유화학합성원료	811	전 자 관	472
8	기타가죽	438	반 도 체	782	석유화학합성원료	374
9	열연강관	419	가 죽	579	석유화학중간원료	305
10	음향기기부품	415	석유화학중간원료	570	건설광산기계	258
	<소 계>	6,701	<소 계>	12,126	<소 계>	6,527
	총 계	18,190	총 계	23,754	총 계	12,398

자료: 산업자원부, 2003. 『2003년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 등

□ 최근 3년간 대중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를 보면 일반 산업 원료에서 원자재 및 부품, 고급 소비재로 수출품목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에 동행(同行)하여 대중교역의 증가 및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 2002년부터는 고급 소비재인 무선통신기기(휴대전화)의 수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중국 고급 소비재시장 개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의 원자재 설비 확충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가전제품 등 중국산 소비재의 對韓 수출 증가 등에 따라 3~4년 내 이러한 흑자기조가 소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최근 나타나는 고급 소비재 수출 증가, 대중 수출품목의 고도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음.

나. 대중 투자의 본격화

□ 2002년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8억 8,675만 달러로(실행 기준, 이하 동일) 2001년 5억 7,518만 달러 대비 54.2% 급증하였으며, 2003년 5월까지 투자액은 4억 2,85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하였음.

□ 중국은 2002년부터 한국기업의 제1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연간 기준).

- 2002년 한국의 해외투자 총액은 전년 대비(50억 2백만 달러) 41.1% 감소한 29억 44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대중투자는 54.2% 급증하였으며 2003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
- 그 결과 2002년과 2003년 5월까지의 해외투자 중에서 대중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7~38% 대로 급증하여 대중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표 3> 한국의 해외투자과 대중투자

(단위: 백만 달러)

	전체	對중국	비중
1993	1264	264	21%
1994	2302	633	27%
1995	3109	840	27%
1996	4389	893	20%
1997	3567	719	20%
1998	4703	677	14%
1999	3226	348	11%
2000	4808	612	13%
2001	4925	575	12%
2002	2397	886	37%
2003.5	1120	428	38%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정보.

□ 전반적인 해외투자 부진과는 상관없이 2002년 이후 대중투자가 급증한 것은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기업들의 대중투자가 새로운 체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대중투자가 상당수 한국기업들에 ‘선택’이 아닌 ‘필수’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함.

-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중국의 국가위험에 대한 우려가 불식됨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대중투자가 본격화되었음.
-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거대한 중국의 잠재시장을 개척/선점하고, 중국의 저렴한 생산요소(노동, 부품)를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두 가지 동기에서 진행 중임.

2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가. 주요 협력 의제와 평가

-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에 10대 경제협력사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의 영역을 확대/다변화하고, 상호투자 촉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또한 한·중간의 오랜 현안이었던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누적 문제에 관해 양국 간 통상 확대를 통한 확대균형 달성이라는 방향으로의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협력 확대 및 통상분쟁 감소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대중 무역흑자 누적 문제는 공동성명이나 양국 정상의 주요 발표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았음.
- 정상회담기간 중에 논의되고 합의된 주요 의제들은
 - 1) 차세대 IT, 미래첨단기술 개발, 에너지/자원, 인프라, 환경 등 분야에 관한 교류·협력을 합의한 10대 협력사업,
 - 2) 상호투자 확대의 토대 마련의 계기가 될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합의,
 - 3) ASEAN+3 적극 참여 및 한·중·일 공동선언 합의, 한·중·일 FTA 공동연구, 한국 APEC 개최 협력 등 동북아 경제협력 관련 논의등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음.

나. 10대 협력사업: 산업협력 전망

- 지난 정부에서 합의되었던 5대 협력사업에 이어 금번에 10대 협력사업의 추진을 합의함으로써 협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대부분의 협력사업이 한국측의 발의에 의한 것으로 향후 각 분야 협력을 통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당시 5대 협력사업 중에서 CDMA, 완성차 생산, 보험업 진출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 및 WTO 가입에 따른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에 따라 중국정부의 특정 산업 및 사업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기술표준 결정,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개방 속도 결정 등 분야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정부간 협력 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평가됨.

< 표 4> 10대 협력사업과 주요 내용

협력 부문	주요 내용
차세대 정보기술(IT)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표준화 협력 확대
미래첨단기술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 관련 공동연구센터 설치
중국 전력산업	우리 기업의 발전소 신규 건설에 참여 등
중국 자원개발	유연탄광, 유전·가스전 등
고속철도(北京-上海) 건설사업	정부 또는 민간차원의 협력 강화
환경산업	한·중 환경산업 투자 포럼 연례 개최
금융산업	금융부문의 IT 관련 기술공유, 금융기관간 상호 진출
유통산업	대중 투자확대, 중국 유통시장 진입규제 완화
北京올림픽 지원	올림픽 관련 IT 기술 협력
서부대개발 사업	중국정부의 투자설명회 개최 추진 등

- 10대 협력사업은 내용 면에서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 추진, 인프라 및 자원분야의 협력 모색, 서비스업 개방 촉구, 상호관심사업 협력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차세대 정보기술, 미래첨단기술분야의 협력은, 한·중간 기술 공동개발을 통해 중국이 추진하는 시장-기술교환정책을 활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음.
 - 4세대 이동통신 등 분야에서 기술표준화 협력은 향후 IT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시장 공략에서 한국기업들이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자원, 전력, 고속철도 등 인프라 및 자원 관련 분야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및 참여의지를 표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인프라 및 자원 협력은 고도의 정책적 고려가 개재(介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려 하기보다는 소규모의 시범적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음.
- 금융 및 유통산업 등 중국의 서비스업은 WTO 가입에 따른 개방이 진행 중인 분야로 향후 막대한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 분야에서 중국은 “개방과 허가는 별개”라는 관점 아래 선별적이고 순차적인 사업 허가를 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보호, 베이징올림픽, 서부대개발 등에서의 협력은 상징적 의미가 비교적 크므로,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사보다는 협력을 통한 다양한 파급효과의 창출과 장기적 협력 토대의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함.

다. 상호투자 확대의 토대 마련

- 대중투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1992년 체결된 한·중투자보장협정의 개정을 합의하였음.
 - 현재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투자보장협정』이 아니라 WTO 가입을 계기로 최근 정비된 중국의 여타 외자기업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개정 합의는 한국기업에 주는 실제적 효과보다는 1992년 이후 외국인투자 관련 법안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이미 관련 중국 국내법률이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투자보장협정의 개정 과정에서는 한국기업의 투자환경 및 보장보다는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를 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확충함으로써, 이번 개정을 한·중 상호투자 확대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은 투자유치(引進來)에서 해외투자확대(走出去)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미국 등의 거듭되는 위안화 절상압력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절상압력 완화 필요성도 대두되는 상황임.

- 최근 중국정부는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채권투자 허용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으며, 향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도 장려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대기업의 성장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들은 해외시장 개척, 선진기술 도입, 신산업분야 진출, 국내 홍보효과 등을 위해 해외투자에 나설 적극적 의지가 있음.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1995년 1.1억 달러에서 1998년 2.6억 달러, 2000년 5.5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으며, 2002년 6월 현재 비금융 해외투자 누계는 총 6,758건 13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0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2005년에는 연간 해외투자 규모가 34.7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이미 2002년 중국 BOE사가 하이닉스의 LCD부문을 인수한 사례(1.5억 달러)가 있음.

라. 지역협력 논의 본격화

- 이번 방중에서는 ASEAN+3 회담에서의 한·중·일 정상공동선언 합의, 한·중·일 FTA 공동연구 지속, APEC회의 협조,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강화에 대한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 동북아의 경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데 대한 양국의 공동 관심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동아시아 및 동북아 지역내의 원활한 협력은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제공할 것임.

3. 새로운 협력 방향

가. 제1의 경쟁 파트너 시대에 맞는 중국전략(中國戰略)

- 중국은 이르면 2003년, 늦어도 2004년부터 교역 및 투자 면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쟁 파트너가 될 전망이며, 이처럼 달라진 중국경제의 위상을 고려한 중국전략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성장이 주는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위험(risk)에 대한 명확한 구별에 기초한 대응전략이 필요함.
 - 기회활용 면에서는, 중국의 시장 및 산업 성장이 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점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
 - 위협대처 면에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고도화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
 - 위험대비 면에서는, 중국과의 경쟁 확대에 따라 중국경제의 불안정요인이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 가능성을 인식하고, 불안정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중국경제의 부침이 초래하는 위험요인에 대비

나. 다양한 협력 통로 구축

- 중국의 고도성장은 첨단기술분야, 자본집약산업분야, 노동집약산업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전방위적 성장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으므로, 특정한 협력모델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성장의 과실을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함.
 - 한·중 경쟁의 구조에 대해, 한국은 자본/기술집약상품, 중국은 노동집약상품이라는 식의 정형화된 국제분업체제 관념을 지양해야 함.
- 우선 10대 협력사업의 분야별 추진 목적과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접근방식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협력 통로를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함.
 - 차세대 정보기술, 미래첨단기술분야 협력의 경우, 기술 공동개발을 통한 미래 시장 先占기반 마련이라는 목적 아래, 양국 비교우위기술의 상호 흡수와 차세대기술의 공동표준안 개발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향후 사업을 직접 담당할 양국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 인프라 및 자원분야 협력의 경우, 중국정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사업에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 표명으로 중국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금융 및 유통분야 협력의 경우, 개방 예정 시장에 대한 조기 진출이 주요 목적이므로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WTO 가입 일정의 정확한 준수를 지속적으로 촉구함.
- 환경, 올림픽, 서부개발 등 분야 협력의 경우, 사업정보보다는 양국간 공동협력의 경험을 구축하고 이미지 홍보 등 부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ODA(정부개발원조) 등 경험 자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함.

다.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에 대한 적극 대응

- 최근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현실 인식 및 시각의 정립이 필요함.
 - 현재 대중투자는 최대 연간 8억 9천만 달러 수준(1996년)인데, 1996년 대미투자가 15억 8천만 달러 수준에 이른 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절대적 규모 면에서 아직은 일각의 우려와는 거리가 있음.
 - 기업의 투자결정은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입각하는 것이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바람직하며, 인위적 제한은 대만의 경우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따라서 중국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한 유효한 대응은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과 산업구조고도화의 지속 추진임.
 - 양국의 투자환경을 비교하는 데 있어 국민소득 1,000달러에 불과한 중국과 2만 달러 시대를 지향하는 한국 사이의 임금격차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한국은 임금억제보다는 고임금-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일부 저임금 의존형 산업의 중국 이전은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오히려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많은 기업이 설비이전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음

에 유의

- 중국시장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동아시아 생산기지 유치, 중국기업의 투자 유치 등 중국 역활용(逆活用)을 통해 제조업 공동화에 대응할 수 있음.
- 최근 LG-Phillips의 PDP 투자 계획, 인천의 DHL물류기지 투자 계획 등은 모두 중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활용한 투자유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도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기술흡수를 위한 對韓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라. China Risk 관리 강화

- 최근 대중교역 비중의 확대는 그동안의 대미, 대일 교역에 대한 편중을 시정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수출시장 다변화라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음.
- 중국이 제1의 교역 및 투자 상대국이 됨에 따라 중국경제의 부침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도 커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중국은 최근의 SARS 파동, 위안화 절상 논쟁, 부실채권 누적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의 불안정성이 매우 큰 나라임.
-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주로 투자환경 분석에 집중되어 왔으나, 향후 중국 거시경제 중장기 전망 및 각종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한 심층 연구로 중국 연구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마. 동북아 협력 틀의 전략적 활용

- WTO 가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중국은 최근 ASEAN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하는 등(early harvest 합의) 지역주의적 국제협력에도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속에도 동아시아 지역내에서의 지역협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 이 지역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각국의 전략을 고려한 지역협력의 기본구상과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를 활용하고 중재함으로써 한국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유의.